

주일에배
 오전 (1부) 8시30분 7시
 오전 (2부) 7시30분 10시
 오후 (3부) 10시 2시
 오후 (4부) 2시 7시30분
 금요일전 (1부) 1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30분 10시
 오전 (2부) 10시 2시
 오후 (3부) 2시 7시30분
 수요일배 (1부) 8시

인천 교회 0321 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예수중심교회

2013년 4월 7일 (제684호)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월·주일에 배 및 인터넷 생방송)



동 우 칼 렘

의도를 알아야지

어느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려고 전화를 걸었더니 그 월, 장학금을 입금해달라고 한다. 황당했다. 나는 그를 사무실로 불러 이렇게 말했다.

“이봐, 장학금을 입금하라니 그게 말이 되나? 장학금을 줄 때는 돈도 돈이지만, 장학금을 주는 의도, 이유를 알아야 하지 않겠니? 너는 내가 장학금을 주는 이유를 아니? 단지 집안형편이 어려우니까 주는 거라고 생각하니? 나는 네가 성공해서 남에게 베풀며 살기를 바라며 장학금을 주기로 마음먹은 거란다. 물론 입금해주면 편하겠지. 그러나 그건 장학금을 주는 자의 생각을 모르는 거란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 병만 고치겠다고 오는 사람들과 동일하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고, 각종 병을 고쳐주신 것은 물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또한 육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공생애 1/3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줬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이 기사와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나가 전파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병만 고치겠다고 오는 사람들, 그래서 병만 고치면 인사조차 안 하고 가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었다.

시험 출제자의 의도를 알면 답을 찾을 수 있고, 상사의 의도를 알면 그의 눈에 들 수 있다. 부모의 의도를 알아야 효자가 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주군이신 주님의 뜻을 알아야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다. 주인의 뜻을 모르고야 어찌 종으로 살 수 있겠는가. 수박 겉만 핏지 말고, 속이 어떤지 파악하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지난 3월 30일 토요일 오후 4시,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원웨이 청소년 부흥집회’ (주제: 원웨이 One Way, 오직 한 길)가 서울 예수중심교회 중·고등부 주최로 열렸다. 약 한 달간의 준비기간을 통해 교사 및 학생들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를 넘쳐나게 채워주셨다.

강사인 이시대 목사님은 알기 쉬운 비유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과거 고(故) 박정희 대통령에게 석유와 동(오일쇼크)으로 엄청난 이익을 본 중

얼을 얻었으니 일 년 열두 달 쉬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있으며, 주변에 모래와 자갈이 깔려 있으니 물차로 물만 퍼 나른다면 마음껏 공사하며 큰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당시 새마을운동이 주춤했던 대한민국은, 이후 중동으로부터 막대한 자본을 벌어들여왔고, 이로 인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사는가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 오히려 ‘예수 믿으면 고달프

게 예비하시는 하나님’ 참조) 토요일에 장소를 찾기 위해 ‘여성플라자’를 예약하게 되었고, 청소년집회에 대한 비전과 감동을 주셨다. 평소 80명 정도 토요일에 배를 드리는데, ‘333’ (3월 30일 300명)이라는 구호 아래, 300명의 학생이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뛰어왔다.

이 날을 위해 전도사, 장로, 교사, 그리고 학생까지 30명 넘는 인원이 서울, 인천, 경기 전역에서 한 장소로 모여 2주 동안 새벽기도를 드렸고, 릴레이로 금식



원웨이(One Way) 청소년 부흥성회(2013. 3. 30 대방동 여성플라자)

동의 부국들이 각종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요청을 해왔다. 박 대통령은 이 일이 국가에 이익이 되는지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는데, 관련 공무원들은 ‘기온이 50도 이상 올라가고, 1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나가서 일조차 할 수 없습니다.’라고 보고했다. 그렇지만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전혀 다른 의견을 냈고, 이에 따라 중동 진출을 결정하게 되었다. ‘하늘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그 곳은 건설공사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더운 낮에는 쉬고, 밤에 공사를 하면 됩니다. 비가 내리는 것과 겨울에 얼음이 어는 것은 공사 현장에서 가장 안 좋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비가 안 오니까 공칠 일도 없고, 날씨가 더워서

다, 놀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세상에서 잘 살지도 못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예수 안에는 진정 기쁨과 평화와 구원이 있다. 천구 따라 억지로 왔건, 다른 이유로 왔건, 오늘이 이 발걸음은 천국으로 가는 길의 첫걸음이다. 먼 훗날 천국이라는 골대로 골인하는 학생들이 되기를 바란다.”

설교를 마치고 학생들은 ‘예수님 영접 기도’까지 따라한 후, 분위기는 한층 무르익어 찬양과 박수소리는 더욱 크게 터져 나왔다.

이 집회는 기획준비단계에서부터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채워주셨다. 중·고등부는 처음부터 이 집회를 기획하고 장소를 대관한 것이 아니었다. (관련기사 683호 6면, ‘더 좋은 곳으로

기도를 드렸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인력을 보내주셨고, 재정은 계약금을 치르는 날 새벽부터 집회 당일까지 해서 필요한 모든 금액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 넉넉하게 채워주셨다. 참석한 학생 대다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연합장을 가득 메우며 뷔페 식사를 하는데, 이런 광경은 보는 자체로 은혜가 됐고, 천국 잔치라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원웨이 청소년 부흥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크게 깨달았고, 사람이 할 일은 순종해서 ‘기도하는 것’과 ‘전하는 것’ 뿐이라는 소중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이창훈 기자

honny0116@gmail.com



이시대 목사님이 강사로 초청되셨다



집회 후 배설된 연회 모습



모두가 하나 되어 찬양하는 모습

구독신청 : 1600-0688

강사이신 이시대 목사님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막16:1~11)

부활의 영광을 맛보려면 전도하라

회교의 아메디야(Ahmediyya) 종파의 창시자인 굴람 아메드(Gulam Ahmed)는 그의 임종 침상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기독교에 치명타를 날리기 원한다면 직접적으로 부활을 공격하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파괴하라. 그러면 그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는 결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시켜라. 그러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 이것이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의 초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다시 사건 예수님을 가리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고전15:20). 이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도 동일하게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후11:23~27).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 답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있습니다.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놀지, 무엇 하리이런

게여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곧 ‘땅의 티끌’이란 무덤을 가리키는 말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자’는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신앙인들을 일컫고, 그와 반대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은 이 땅에서 불신앙의 삶을 산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왔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계

20:12). 곧 우리의 행위,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따라 ‘영생을 얻는 생명’의 부활’이냐 ,



일을 하겠느냐? 그러나 부활의 소망과 확신 때문에 그런 온갖 위험과 고난도 다 무릅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 역시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몸을 희생하면서 세계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축복만 있다면 절대로 복음을 위하여 사지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에, 또 부활 후에 받을 상이 있기에 이 소식을 듣고 불철주야, 동분서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필리핀 집회만 해도 방혜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협박, 공갈도 많습니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는 것은 부활을 믿기 때문이며, 죽어도 부활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수욕을 받아 영원히 부끄러움 심판의 부활’이냐로 인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격의 부활로 인하여 믿지 않는 자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활한 우리는 인격적으로도 부활해야 합니다. 사울이 완전히 다른 바울이 되었듯이 적당히 개량된 존재가 아니라 전혀 다른 내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슬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4:22~24). 험기 많고, 우유부단했던 베드로는 인격의 부활을 이룬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벧후1:4~7).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은 죄와 악을 이기

품위라는 그릇 속에 인격과 절제를 담아라

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또한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을 멀리하고, 세상의 쾌락을 배제하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이요, 썩어져 가는 세상을 살리는 소금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부활은 예수님으로 인해 거저 얻습니다. 그러나 인격의 부활은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롬7:22~24)라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물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법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세대에 따라 죄악과 쾌락을 좇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영혼이 살아 있으니 이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 산의 동네요, 들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마5:13~14). 그래서 우리를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앙의 부활, 인격의 부활이 이루어질 때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것이며,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널리 전파될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고전15:19). 할렐루야!

영생을 얻는 생명의 부활이나 수욕을 받는 심판의 부활이나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롬6:4~5).

사람들은 제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쉬지 않고 세계로 나가냐?”, “왜 그리 멀고 위험한 곳에 가냐?”고요. 그 대답을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대신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온갖 위험을 다 무릅쓰면서도 쉬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 여행에서 그가 얼마나 많은 위험과 고난을 겪었는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군이냐 정진없는 말을 하거나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감한 때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깊은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060)700-0633

(060)700-02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 예수중심교회

창조경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해 그 야심 찬 비전에 비하면, 일반 대중의 이해가 많이 부족한 듯합니다. 역대 정부에서 늘 가치를 내걸었던 것에 이름만 바꾼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으나 어쨌든 새 정부가 향후 대한민국 경제의 5년을 이끌어갈 비전으로 내세운 것인 만큼, 이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유용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란 용어는 영국의 경영전략가인 존 호킨스가 2001년에 펴낸 책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 즉 창의력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및 유통업, 엔터테인먼트산업 등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 설명하였습니다. 즉 2000년도 IT버블 붕괴 이후 영국의 새로운 산업을 문화콘텐츠와 같은 창조산업 중심으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이고, 모든 사람들이 창조적 업무에 몰입하는 경제구조를 창조경제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문화산업으로 국가 전체 발전전략을 구상하기에는 경제진화 단계가 영국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기초 과학기술, 기존의 산업 및 인프라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시킴으로써 창업 및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고용을 확대한다는 한국식 창조경제를 공약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필수적인 3가지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창조적 아이디어가 구현보다 크게 중요해졌다. 90년대까지도 아이디어를 제품화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크게 발생되었으나 메타기술(소프트웨어 제작용 소프트웨어)의 발전은 과거 IBM의 방대한 연구진들이 장기간에 걸쳐 개발하던 수준의 제품을 개인이 1주일이면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갖추어졌고, 하드웨어도 3D 프린터, 시뮬레이터 등이 직접 생산 및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적의 설계와 구성, 그리고 사후의 위험 등을 미리 감지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실험비용을 극소화시켰다. 따라서 창조적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이 쉽게 창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런 배경에서 1인 창조기업 정책이 탄생하게 된다.

둘째, 향후 기업경쟁력의 핵심은 미래시장이 요구하는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의 선점, 그리고 고객관계(client relationship), 즉 확보된 시장(captive client)으로 대별된다. 전통적인 산업사회의 경쟁핵심이었던 생산원가(인건비, 재료비, 설비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공개적인 경쟁을 통하여 합리화되지만, 지적재산권은 독점적 권한을 한 시적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확보된 시장의 규모가 수익성을 결정짓는다.

셋째, 공정한 경쟁과 시장원칙의 적용이다. 혁신과 창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적합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즉 자기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구현하여 시장에서 검증했을 때 대가를 지불하는 주체가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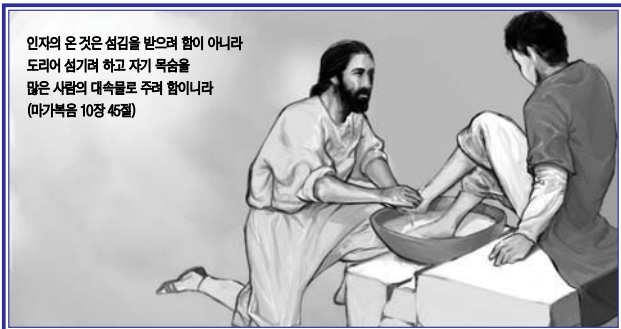
어야 하는데, 미국의 경우 이를 수천 만 불, 수 억불에 사주는 인수합병(M&A) 시장이 존재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법적으로 엄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체제가 잘 보호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의 일부 대기업들이 아직도 중소기업 혹은 협력업체의 핵심기술자들을 높은 보수를 미끼로 스카우트하는 등의 폐단은 근절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창조경제란 것이 정부 혹은 관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즉 정부만 능주의가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서로의 기술과 창의력을 공유하면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발명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보다는 기업의 족쇄를 풀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태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입니다.

창조주는 오로지 하나님 한분이지기 때문에 창조라는 단어를 피조물인 사람이 사용하기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조건부이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아 자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국간 무역을 통하여 엄청난 부를 축적하였고(왕상10:14~29), 또한 요셉은 7년 흉년을 대비하기 위하여 풍년기간 동안 입도선배, 보관, 물류, 유통 및 선급관리기법을 썼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지혜를 주셨고, 무엇보다 그의 꿈에 계시된 것과 같이 계절적 요인으로 잘 맞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총회장 목사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류발전의 문화는 자원의 고갈이 아니고 아이디어의 고갈에서 오는 것이라”고.

임윤석

tomcalvary21@gmail.com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만 섬기라!

지난 3월 27일 이시대 목사님의 ‘여호수아’ 강의 내용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는 영도자라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일성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킨 인물입니다. 이들을 보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힘써 노력하며, 때를 기다려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둘째, 담대해야 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단단히 무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자는 강하고 담대하며, 결코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셋째, 여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고 선포합니다. 이후 언약제를 벤 제사장들이 발을 땅에 디딘 순간, 물이 끓어지고 쌓여 그들은 마치 마른 땅을 걸듯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육을 반드시 깨끗이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죄에는 그에 따른 형벌이 있을 뿐이지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 증표로 돌을 세우게 하십니다(수4:1~9). 우리 믿는 이들에게도 이런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속사람이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은 물론, 겉 사람 역시 그에 어울리는 행실을 보여야 합니다. 즉, 겉과 속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이 길갈에 진을 칠 때부터 만나가 그치게 되는 장면(수5:10~12)에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는 점입니다. 만나, 오병이어의 기적,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모두 그 때 그 때 필요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착각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분명히 심고 거두는 법칙을 주셨기에(창8:22), 비록 하나님이 주셨을지라도 사람이 땀 흘려 노력해야 거둘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의 원인이 되었던 아간의 범죄(수7장) 사건을 통해, 죄를 지었을 경우 속히 회개해야 함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당부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키고

그 분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수23:6, 23:11). 또 백성들에게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기를 명하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24:14~15)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 땅의 기독교 역사와 우리 교단의 발자취를 돌아볼 때 여러분은 여호수아와 같은 자세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고, 또 믿음의 선전들이 닦아놓은 길을 즐거이 걸으며 마음껏 지배하고 정복하며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우리는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을 배웁니다. 배움의 끝은 실천이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국진 기자

joyful_jina@hanmail.net

수화 예배안내

매주 주일 3부 & 4부 예배
금요일
문의: 주축복 전도사
010-3256-0288



귀를 기울이세요

군대에 갔다 온 남자들이라면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은어로 ‘고문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6·25 전쟁 직후 우리나라를 도와서 전쟁상의 자원을 위해 파견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국군의 실정을 잘 몰랐던 미 고문관은 현실과 동떨어진 무리한 주장으로 군 당국을 난처하게 할 때가 많았고, 그러다보니 함께 일하는 군 관계자들은 고문관이라는 말만 들어도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피로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말은 말귀를 잘 못 알아듣거나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말쑥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그 의미가 왜곡된 것이지요. 군대에서 특정인을 가리켜 ‘고문관’이라고 하면 대개는 문제가 많은 사병, 손이 많이 가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존재로 치부됩니다. 하지만 고문관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분들을 ‘연단 제조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문관과 연단 제조기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로 인해 우리 마음의 약함을 깨닫고 더욱 겸손해지며, 그들에게 받은 연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때, 우리의 인내와 연단은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신재식 전도사

blessednio@naver.com

분노를 다스리는 법

최근 2~3주간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이었다. 그 시간을 돌이켜보면 항상 내 마음의 그릇은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다. 이리 저리 쫓겨 다니다 보면 그 그릇은 금방 찢랑거리며 쏟아질 것 같았고, 결국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쉽게 쏟아져 버렸다. 나에게 있어 '분노'는 위태롭게 찢랑거리는 '물 컵' 같았다. 위태롭게 흔들리다 결국 물이 쏟아지면, 나는 다시 또 물을 채워야만 하고, 쏟아진 물을 닦아야만 했다. 화가 폭발하는 순간, 내 삶은 엉망이 되어 버렸다. 왈칵 쏟아지는 그 정체는 다름 아닌 불안, 초조, 스트레스, 서두름 등의 부정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보면 나를 비롯한 요즘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에 쫓기고, 급박하고, 초조하고, 예민해져 있다. 그래서 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흥분하고 쉽게 화를 낸다. 바야흐로 '분노의 시대'가 된 것이다.

성경 속에도 화를 참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가인은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렸으나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분하여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 그는 결국 저주를 받고, 평생 동안 떠돌아다녀야 하는 벌을 받았다(창4:5~15). 반면에 리브가는 아담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후에 에서가 분노하여 동생을 죽일 결심을 하자 아담을 피신시킨다. 리브가는 에서의 분노를 피하지 않으면 두 아들 모두를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창 27:41~45).

아무리 후회를 해도 이미 얻어진 물이 된 가인, 그리고 에서의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 지혜를 발휘한 리브가. 이 두 사

람과 나를 돌이켜 생각해 보았다. 화를 참지 못한 순간, 엄청난 후회가 밀려오고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은 한 줌의 재로 변한다. 때 늦은 후회는 속만 쓰릴 뿐이다. 분노는 마치 눈사태와도 같다. 작은 눈덩이가 구르기 시작하면 그 눈덩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주변의 모든 것들을 휩쓸어 버린 후, 결국 폐허를 만든다.

그럼 어떻게 화를 참고,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 그리고 화는 왜 나는 것일까? 도대체 왜 분노를 참기가 어려운 것일까? 나는 이렇게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인가? 자책과 후회로 괴로워하며 기도하던 중에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위태롭게 찢랑거리던 내 마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약1:6)와도 같았다. 그러니까 나는 내 길을 주님께 의

탁해 놓았음에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안해했던 것이다. 가인의 분노도 요동하는 바다 같은 믿음 때문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리브가는 아담이 받은 장자의 축복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지혜롭게 에서의 분노를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화를 참고,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아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야고보서 1:2~4)

전헌지

ppjee@hanmail.net

Good News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들의 목록이 자기 앞에 펼쳐졌습니다. 두려워서 고개를 숙인 채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힘없이 대답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1:7)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루터는 그 말씀을 보면서 기쁨으로 예수님께 찬양을 드렸다고 합니다.

"기록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롬3:10). 이 땅에 죄를 짓지 않은 온전한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죄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하며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서 로마서 8장 도입부에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8:1~2). 인간이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무슨 행위로나 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16:31).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모든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이초석 목사 부천집회

4월 15일(월), 16일(화) 저녁 8시

부천체육관 (송내역 북부역 출구 차량운행)

문의: 1600-0688, 032-763-9191

